

# ‘리더십 공백’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 속도내나

11곳 중 5곳 사퇴하거나 임기 지나  
오영주 장관 “빠른인사 진행할 것”  
신보중앙회·KVIC, 인선절차 진행  
창진원, 1년만에 유종필원장 취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순차적으로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총 11곳 중 5곳의 기관장이 이미 사퇴해 자리가 비어있거나 임기가 끝난 가운데 최근 창업진흥원(창진원) 원장이 1년만에 새로 임명되면서 인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쏠린다.

오영주 중기부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줄어들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인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3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맞물려 있고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까지 치러질 경우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인사를 계속하

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는 게 대표적이다.

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신보중앙회(신보중앙회)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현재 신임 회장과 대표 인선 절차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 지난해 8월 이미 회장 초빙공고를 냈었던 신보중앙회는 지난 2월 또다시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았다. 신보중앙회 회장 자리엔 최근까지 중기부에서 1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인사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끝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훈 회장도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었다.

전임 대표 사임 후 1년 넘게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던 KVIC도 지난달 28일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임기는 역시 3년이다.

창진원은 지난달 27일 유종필 원장이 새로 취임했다. 신임 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임고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은 이들 기관 외에 공영홍소평,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까지 모두 11곳이다.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끝난 5곳

중 3곳이 인선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채워진 셈이다. 공영홍소평은 전임 조성호 대표가 지난해 9월 임기 종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 현재 공석이다.

기보 김중호 이사장은 작년 11월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역임했다.

이들 기관 외에는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이 오는 7월,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이 9월에 각각 3년 임기가 끝난다. 하반기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소진공과 중진공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 등의 개입공신들이 이사장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직전엔 모두 중기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었다.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중기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계속 역임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도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는 직전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비웠다. 정 부회장은 중기부에서 1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내심 차관급 인물이 상근부회장으로 오길 바라는 눈치다. 중기부 출신 중에선 지난해 7월 까지 차관을 하다 공직을 떠난 오기웅 전 차관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의중이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의외의 인물이 안살림을 맡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의 경우 김영환 사무총장의 임기가 이달로 끝난다. 김 총장은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장 직전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을 맡았었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은 총장이 4개 본부를 이끌며 총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 민주당, 국정협의회 ‘보이콧’… 무산 위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헌법의무 이행 안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박수영, 단식농성 돌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도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

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현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해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글로벌 AI스마트폰 신작대결 ‘관심집중’

### ‘MWC 2025’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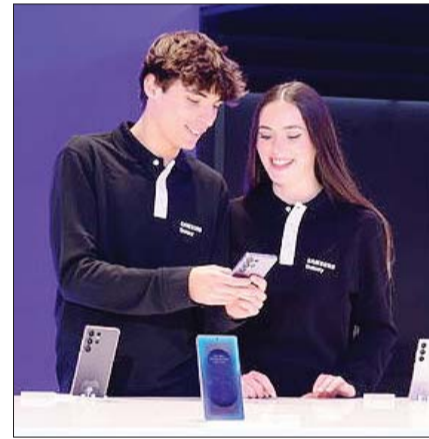
삼성, AI기능 확대 ‘갤럭시 A 시리즈’  
모바일 AI ‘어썸 인텔리전스’ 탑재  
화웨이·샤오미 등 中 344개사 참여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포그레스(MWC) 2025’가 막을 올린 가운데 AI(인공지능) 스마트폰 신작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AI 기술의 본격화로 업(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번 MWC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미국 제재로 지난 1월 열린 CES에 불참했던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이 참석함에 따라 새로운 품팩터를 갖춘 전자기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선점한 AI 스마트폰 시장의 격화된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MWC 2025’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융합(Coverage)·연결(Connect)·창조(Create)’이다. 그간 MWC 무선통신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ICT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번 MWC의 관전 포인트는 AI폰 신작 대결이다. 올해는 중국 344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며 규모면에서 스페인, 미국에 이어 3위다. 화웨이는 올해도 전시장 1관을 통째로 빌려 최대 규모인 1200㎡ 부스를 꾸렸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확대 적용한 신규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했다. AI폰 라인업을 확대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추격에도 선두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신제품은 ‘갤럭시 A56 5G’와 ‘갤럭시 A35 5G’ 두 종이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브랜드다. 이 모델에서는 갤럭시 A용



MWC25에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 부스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모바일 AI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탑재해 갤럭시 S25 시리즈의 AI 기반 카메라 기능인 ‘서클 투 서치’를 포함해 ‘편집 제안’, ‘AI 지우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업체들 또한 초박형 폴더블폰, 화면을 2번 접는 트리폴드폰 등의 출격을 예고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한 트리폴드폰 ‘메이트 XT’를 전시할 예정이다. 메이트 XT는 화면이 ‘Z’ 형태로 2번 접히는 것이 특징이다. 기기를 펼쳤을 때 태블릿 PC에 준하는 10.2인치 대화면을 구현하면서 두께는 3.6mm로 얇다. 웨어러블로 선보일 ‘밴드 10’는 전작과 같은 1.4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유지했지만 수면 관리 기능 등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MWC가 열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의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과 샤오미 하이퍼운영체제(OS) 2가 탑재됐다.

샤오미 15의 글로벌 가격은 1499유로(약 227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보다 가격을 높여 저가폰 이미지를 탈피하려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CU·GS25 등 편의점, 작년 순증수 급감

>> 1면 ‘월세 부담에 버티는…’서 계속

2대 양강 편의점의 경우를 보면, CU는 2022년 932개, 2023년 975개, 2024년 696개로 순증했다. GS25는 2022년 949개, 2023년 942개, 2024년 722개로 양사 모두 지난해 순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2023년 말 6598개 점포에서 지난해 말 6130개로 편의점 점포 절대 수가 감소했다.

의류 매장도 예외는 아니다. 2~3년 전만 해도 가로수길에서 자리를 지키던 여러 개인 의류 매장이 하나둘 사라졌고, ‘임대’ 현수막만 남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대부분 e커머스를 통해 옷을 구매한다”며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젊은 세대는 제조·유통·일괄(SPA)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 개인 의류 매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실이 늘어나고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이청하·안재선 기자 tree6834@